

주식회사 뉴라텍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9. 22.(금)		배포자료	보도자료 2 매 / 사진 2 매	
문의	전략경영 본부	조기배 부사장	Tel: 02-2088-1975		E-mail: kb.cho@newratek.com
		박상규 그룹장	Tel: 02-2088-1978		E-mail: justin@newracom.com
홈페이지	www.newratek.com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4,4층(대치동,오로라빌딩)	

국내 시스템반도체기업 발명 Wi-Fi 6 표준특허, TP-Link 로부터 약 500 억 원 특허침해 배상 판결

- 뉴라컴 파트너사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 TP-Link 상대 미국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 글로벌 스마트폰·PC·노트북·정보가전·장비 제조업체 대상 특허 사용계약 체결 탄력 받을 듯
- Wi-Fi 표준규격 선도 및 관련 발명특허 선제적 확보 통해 수천억 원 특허 로열티 수입 기대

국내 중소 Wi-Fi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NEWRACOM)은 미국시간 지난 14 일, 특허 라이선스 파트너인 미국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Atlas Global Technologies)가 TP-Link 에 제기한 Wi-Fi 6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화 37.5 백만 달러의 일시 손해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보유한 200 여건의 Wi-Fi 6 표준특허 라이선스 전개를 위한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인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뉴라컴으로부터 2021 년 2 월 Wi-Fi 6 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특허 수익화를 위하여 매입한 바 있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발명한 표준 특허들이 정당한 사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PC·노트북·태블릿·스마트홈 디바이스·정보가전·라우터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 대상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 중 부득이 특허 침해 사실 불인정 및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 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TP-Link 판결은 미 연방법원이 특허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첫 번째 결과로 향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있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동부지역 법원에 TP-Link를 대상으로 뉴라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약 2년 간의 공방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도달하였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TP-Link가 뉴라컴의 5개 특허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과거 및 향후에 미화 약 37.5백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 및 발생 예정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피고인 TP-Link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일시불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침해가 인정된 뉴라컴의 특허는 뉴라컴이 Wi-Fi의 표준화기구인 IEEE 802.11ax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Wi-Fi 6 표준규격 수립에 기여한 표준특허들로서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어레이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특허는 글로벌 표준규격 수립에 기여한 발명 아이디어로서 표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업체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발명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바, 길목특허라고도 불린다.

현재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수십 곳의 잠재적 특허 사용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Acer, ASUSTek, Dell, D-Link, HP, OnePlus, Sercomm 및 Unizyx(Zyxel) 대상으로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물론 일부기업의 경우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 뉴라컴은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가 수입한 특허 로열티 수입의 일부를 배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수 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특허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뉴라텍 및 자회사 뉴라컴의 이석규 대표이사는 “뉴라텍은 글로벌 강소형 신생 Wi-Fi 펌프로서 브로드컴, 퀄컴, 미디어텍 등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특허 소송에서 보듯이 새로운 Wi-Fi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2018년 4월에 발간된 특허 등 무형자산 전문 저널인 IAM의 산업보고서¹에 따르면, 뉴라컴은 Wi-Fi 6 표준규격 기술 제안에 있어 퀄컴, 인텔, 화웨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뒤로는 세계 최대 Wi-Fi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을 비롯하여, 미디어텍, LG, Apple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¹ * Source: <https://www.iam-media.com/ieees-empirical-record-success-and-innovation-following-patent-policy-updates>